

선군혁명사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 105(2016)

차 례

머 리 말.....	2
1. 선군혁명사상의 창시와 심화발전	3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창시와 발전풍부화	3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정식화와 심화발전	13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끊임없는 발전풍부화	24
2. 선군혁명원리	25
1) 총대철학	25
2) 군대는 당, 국가, 인민	28
3. 선군혁명원칙	36
1) 군사선행의 원칙	36
2) 선군후로의 원칙	40
4. 선군정치리론	50
1) 선군정치의 본질과 역사적지위	50
2)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56
3)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	60
4) 선군령도체계와 령도예술	63
5)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	70

머 리 말

《선군》이라는 말은 《주체》라는 말과 함께 조선에서 태어난 오늘의 시대어이다.

선군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주이고 존엄이며 승리라는 개념으로 통칭되고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선군의 기치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오늘 선군혁명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선군혁명사상에는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 그것을 구현한 선군정치론이 집대성되어있다.

1. 선군혁명사상의 창시와 심화발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창시와 발전풍부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신 선군혁명사상의 위대한 창시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선군을 혁명지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선군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시면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선군혁명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입니다.》

선군혁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은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워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대외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들은 다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분야들가운데서 군사분야만큼 중요한것은 없다. 사회생활에서 군사분야가 가지는 절대적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로부터 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는것이 바로 선군혁명사상이다.

군사를 중시하고 그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의 총대로 제압하면서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 사회주의운동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해 나갈수 있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혁명군대만큼 위력한 집단은 없으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선군혁명사상은 바로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옵니다.》

혁명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다.

선군혁명사상은 우선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책동이 더욱 악랄해진 시대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마하고 세계를 휩쓴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찾았다.

특히 일제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 형식상에 불과했던 《문화통치》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공공연한 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대의 이러한 흐름속에서 총대의 가치와 위력

을 꿰뚫어보시고 총대중시사상, 선군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조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나섰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은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주로 무저항주의적인 《실력배양》이나 사대주의적인 외교공작에 머물러있었으며 무력항전의 경우에도 개인테로나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싸움에 국한되어있었다. 당시 일제가 총칼로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민족해방투쟁의 전환적돌파구를 여는 열쇠를 총대에서 찾으시고 총대로 조선을 구원하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혁명사상은 빈 터전에서 저절로 생겨나 한순간에 완성되어나오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행세대가 이룩한 사상정신적재부를 토대로 하여 나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선군혁명사상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E. D》의 강령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우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15(1926)년 6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지원》의 사상과 3 대각오, 동지획득에 관한 사상과 함께 두자루의 권총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에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장형태라는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또한 두자루의 권총에는 민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제국주의와 싸워 나라를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을 세워야 한다는 무산혁명에 관한 사상도 담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두자루의 권총에서 《칼 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아버님의 당부를 심장에 새기시였으며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님의 총적지향이었던 무장투쟁으로 반드시 나라를 찾으시려는 혁명적 각오와 립장을 가지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ㄷ.ㄷ》의 강령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15(1926)년 10월 화성의숙에서 《ㄷ. ㄷ》를 결성하신 것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포이며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였다.

《ㄷ.ㄷ》의 강령에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적대적모순은 《타협》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제국주의를 때려부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결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를 매장할 것을 제시한 《ㄷ.ㄷ》의 강령에는 총대로 조선혁명의 닷을 올리고 전진시키며 총대로 반제자주위업을 완성하려는 위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견결한 반제적립장과 결사의 각오가 맥박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두자루의 권총과 《ㄷ.ㄷ》의 강령은 철저한 반제자주사상인 선군혁명사상의 역사적시원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며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입니다.》

선군혁명사상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는 사상이라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과 별개의 사상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여 실천에 빛나게 구현된 사상이라는것이다.

선군혁명사상이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었다는것은 자주성에 관한 원리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 사상론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우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은 무적의 총대,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길을 밝힌 혁명사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식으로 풀어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그 결정적담보는 혁명의 총대이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혁명의 주체에 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선군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력사의 주체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군대를 핵심, 주력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혀준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은 가장 위력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내세우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그것을 따라배우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철저한 사상중시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9(1930)년 6월 30일 력사적인 카륜회의의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신것은 선군혁명사상의 창시를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계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로선이 선군혁명사상의 창시를 선포한 로선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로선이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선군혁명사상의 근본핵을 명시한 사상이며 로선이 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카륜회의에서 당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정세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무력으로 때려부실데 대한 로선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실패와 곡절만을 겪고있던 조선반일민족해방투쟁의 실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카륜회의에서 평화적방법으로는 절대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대전을 벌리는 길만이 조선혁명의 진로를 성과적으로 개척하고 일제의 식민지폭압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부강번영도 있으며 따라서 총대를 중시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 혁명의 법칙을 명시한 위대한 사상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뮈회의에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은 선군혁명사상의 근본핵을 명시한 사상과 로선이며 따라서 카뮈회의는 선군혁명사상의 창시를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회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21(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이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으로 되는것은 우선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선군혁명을 앞장에서 떠밀고나갈수 있는 주체적핵심력량이 마련되었기때문이다.

혁명투쟁을 하려면 그것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혁명력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혁명력량가운데서도 혁명투쟁을 앞장에서 떠밀고나갈수 있는 주체적핵심력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심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총대로 앞장에서 떠메고나갈수 있는 주체적핵심력량을 마련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이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으로 되는것은 또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총대중시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할수 있게 되었기때문이다.

선군혁명사상은 조선의 구체적현실과 조선혁명의 실천적투쟁경험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나온 사상이며 단순히 리론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사상이다. 총대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사상이 다름

아닌 선군혁명사상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심으로써 전면적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조선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선군혁명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였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총대의 역할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원리를 밝히시여 선군혁명사상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주체의 혁명원리, 혁명의 법칙을 밝히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를 중시하고 앞세워나갈데 대한 선군혁명사상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군대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고 주도적력량이며 따라서 혁명력량의 준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무장력량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를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힌 사상리론적업적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군대의 무력적담보밑에서만 당창건준

비사업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견해로부터 혁명무력건설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선군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새롭게 밝힌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이다.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군대의 본성과 사명, 혁명발전단계에 따르는 혁명무력의 형태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 혁명무력건설의 원칙과 방도 등 선군혁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 등 새로운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선군혁명사상의 사상리론적내용들을 풍부화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의 원리와 내용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선군혁명사상의 위대한 창시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총대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혁명군대부터 조직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시기 항일혁명투사들을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건당, 건국, 건군위업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셔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에서도 혁명군대의 역할을 중시하시고 그의 무력적담보밑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단계의 과업을 완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견지하시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조선인민이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립적이고 현대화된 국방공업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선군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앞날을 내다보시고 선군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전망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당사업과 함께 인민군대의 사업을 직접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인민군대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 주위에 굳게 뭉치도록 하시여 선군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무력건설에 쌓으신 업적은 선군정치실현의 튼튼한 토대로, 고귀한 밑천으로 되었으며 선군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은 선군정치확립의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선군혁명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선군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정식화와 심화발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심화발전시켜 선군혁명의 위대한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사상을 전일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반제반미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승리만을 떨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창시되고 그 역사적전진과정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왔지만 그것을 정식화해야 할 역사적과제는 20세기 90년대 중엽에 시대와 혁명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었다.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흐름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으로 조선혁명을 오로지 필승불패의 한길로만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해야 하는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역사의 요구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개척자, 탁월한 령도자

이시며 그이의 혁명위업은 곧 선군혁명위업이다. 총대와 함께 수놓아진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 것이었다.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과 선군혁명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수 있었다.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해야 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즐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력사의 요구였기때문이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자본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선전은 사람들속에서 사상적혼란을 주면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었다. 현실은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하나의 전일적인 사상리론으로 정식화하는 것이었다.

선군사상을 정식화하여야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치높이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선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할수 있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고 사회주의운동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시는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수령의 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의 정식화는 수령의 위업을 같이 빛내이고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서 그것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닌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또한 선행한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그 근본특징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역사적지위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천에서 노는 그의 변혁적역할을 밝히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품으로 지니고 인류의 진보적사상의 발전력사를 환히 꿰뚫고있는 탁월한 사상리론가만이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오로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인류가 낳은 가장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셨던 총대신념, 총대의지의 가장 투철한 체현자이시였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그리고 투철한 총대신념, 총대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실수 있는 근본요인이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창시하시였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운것은 아니다.

선군혁명사상은 그 어떤 명명이나 학술적인 연구에 앞서 실천을 보다 중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장장 수십년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수가 밝혀지고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왔으며 마침내 1990년대에 와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혁명사상으로 정립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 중엽 조성된 국제정치정세와 조선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에 토대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시였으며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정립체계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선군령도과정에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의 기치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특징과 그 과학성과 독창성을 총대와의 관계속에서 심오히 론증하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면서 우선 그 기초원리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

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을 기초원리로,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라는것을 명확히 밝히시여 총대와 혁명의 호상관계, 혁명의 개척과 전진, 완성에서 노는 총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선군혁명사상을 전일적인 체계속에서 전개해나가기 위한 튼튼한 원리적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면서 또한 그 구성 체계에 대하여서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원리와 선군혁명원칙 그리고 선군의 혁명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정치리론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혁명단계, 모든 혁명분야에 관한 로선들을 집대성하고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의 정식화, 이것은 선군정치의 전면적확립과 함께 조선혁명의 새로운 장을 빛나게 아로새길수 있게 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조선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회생활분야들을 선군의 원칙에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선군혁명로선들을 제시하시여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하는 혁명대오의 정예화로선을 내놓으시여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예화한다는것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조직화적면모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전반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조직성과 전투력이 강한 강철의 대오로 만든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여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부문들가운데서 국방공업의 발전을 다른 모든것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며 앞서 발전하는 국방공업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적극 따라세운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은 국방공업의 발전을 다른 모든 경제부문들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워 나갈데 대한 혁명로선이며 이와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한 혁명로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적군인문화를 전형으로 하는 선군시대의 문화건설사상을 제시하시여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적군인문화를 전형으로 하여 선군문화를 건설한다는것은 혁명적군인문화를 사회주의문화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부문들의 높은 발전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혁명적군인문화를 전형으로 하는 선군문화건설로선은 혁명적군인문화를 사회주의문화의 본보기로 내세우는 혁명로선이며 혁명적군인문화를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문화의 전면적개화기를 펼쳐나갈데 대한 혁명로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하는 혁명대오의 정예화로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 혁명적군인문화를 전형으로 하는 선군문화건설로선 등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회생활분야들을 선군의 원칙에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선군혁명로선들을 제

시하심으로써 선군혁명사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선군시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 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49(1960)년 8월 25일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이것은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첫 출발점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말부터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적령도와 함께 군사작전지휘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58(1969)년에 진행된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다. 그리고 주체 57(1968)년 1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주체 58(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121》 사건 등 여러 계기에 인민군대에 대한 군사작전지휘를 직접 하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신데 토대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이 시기에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게 된것은 우선 조선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정세의 절박한 요구와 관련된다.

20 세기 90 년대에 들어와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조선을 압살하려고 군사적침략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지 않으면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의 노예로 될수 있었다.

이 시기에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게 된것은 또한 인민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었기때문이다.

이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던 군인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전당과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이 확립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선군정치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이 시기에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게 된것은 또한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법적, 제도적조건에 대하여 깊이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 87(1998)년 9 월 5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1 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이처럼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선군정치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완성되고 체계화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고 발전 풍부화시키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선군혁명사상에 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첫 시기에 내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시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에 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선군혁명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대철학과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를 선군혁명의 기초적원리들로, 군사선행의 원칙과 선군후로의 원칙을 선군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로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리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본질과 지위, 근본바탕,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 선군령도체계와 선군령도예술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 서 선군정치리론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시였다.

선군정치리론에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온 사회를 선군혁명동지의 세계로 만들데 대한 사상,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등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과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사상을 계승하여 정립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사상적기치로, 지도적지침으로 더욱 빛내이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위업의 승리가 결정되
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줍니다.》

선군혁명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혁명리론이라
는것이다.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관건적문제가 있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인 혁명투쟁에서 관건적문제는 무엇을 혁명수행의 가장 위력한 힘으로 내세우는가 하는데 있다.

선군혁명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힘은 군사적 힘이며 혁명군대의 위력이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대결전이 절정에 달하고 제국주의의 군사적전황과 침략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조건은 총대, 혁명군대를 떠나서는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확증하여주고있다. 총대, 혁명군대를 틀어쥐면 혁명은 백전백승하지만 총대를 홀시하고 놓치면 혁명은 순간에 망하고만다.

선군혁명사상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힘을 키우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혁명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은 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총대로 혁명하는 새로운 길을 밝힌 혁명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이 포괄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혁명과 직결되어있으며 혁명수행의 과학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총대의 위력, 혁명군대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그 종국적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하는 길을 밝힌 사상리론이 바로 선군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별개의 사상인것이 아니라 그 구성체계에 포섭되고 그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높은 경지의 혁명리론이다.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한 선군혁명사상의 끊임없는 발전풍부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립체계화하신 선군혁명사상은 또 한분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선군혁명위업을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드팀없는 선군의지와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립체계화하신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가고계신다.

2. 선군혁명원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현상에는 그의 근본으로 되는 리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원리이다. 사람은 사물현상의 근본리치를 알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모든 사고와 실천을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적운동의 높은 형태인 혁명에도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혁명원리가 있으며 혁명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의 이러한 근본리치를 깨우쳐주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혀줄 때 명실공히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투쟁의 참다운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총대와 혁명을 하나로 결합시킨 새로운 혁명원리, 선군혁명원리를 밝혀주며 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선군혁명원칙과 선군정치리론도 다름아닌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선군혁명원리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며 다른 하나는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이다.

1) 총대철학

선군혁명원리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총대를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는 총대철학이다.

총대철학의 본질적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총대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위업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줍니다.》

총대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생발전도 그 승리적전진과 완성도 혁명의 총대,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담보된다는것이다.

총대철학의 본질적내용은 우선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는것이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는것은 혁명투쟁이 총대, 무장을 틀어쥔 군대와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준비에 의하여 시작되게 된다는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정권을 쟁취하는것이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군사적폭압기구들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에 혁명운동이 개척되며 혁명의 총대는 혁명운동의 개척기로부터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총대철학의 본질적내용은 또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총대로 개척한 혁명의 결과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만 그것으로 혁명이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정치적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의 결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에도 인민대중에게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빼앗고 노

예의 명에를 또다시 씌우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책동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는 심각한 계급투쟁이 계속 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개척기뿐만아니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서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총대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의 원리는 선군혁명사상에서 가장 기초에 놓이는 원리이다.

총대철학이 선군혁명사상에서 가장 기초에 놓이는 원리라는것은 선군혁명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모든 원리적,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방도들이 총대철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에 의해 규정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혁명원리와 그에 기초한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선군혁명원칙 그리고 선군정치리론이 모두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 원리를 구현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총대철학이 선군혁명사상에서 가장 기초에 놓이는 원리로 되는것은 그것이 혁명의 기본문제에 해답을 주는 원리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기본문제는 총대와 혁명의 관계문제이다.

총대철학은 혁명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총대와 혁명의 관계문제, 혁명운동에서 차지하는 총대의 핵심적지위와 그 발전에서 노는 총대의 주도적역할문제를 일반화하여 밝혀준다.

총대철학에서 말하는 총대는 군사학에서 말하는 총이나 대포, 탱크나 함선, 비행기, 미싸일과 같은 무기나 군사장비를 가리키는 군사술어가 아니다.

선군혁명사상에서 말하는 총대는 무기와 군대를 통털어 일반화한 선군혁명사상의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개념이다. 다시말하여 총대는 무기를

잡은 군인대중의 유기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총대에서 기본은 군인대중이다. 군인대중과 결합되지 않은 무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총대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어디까지나 군인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보는것이며 이러한 총대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밝힌것이 총대철학인것이다.

총대철학은 혁명운동에서 차지하는 총대의 핵심적지위와 혁명운동발전에서 노는 총대의 주도적역할문제를 일반화하여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선군사상의 기초적인 원리로 된다.

2) 군대는 당, 국가, 인민

선군혁명사상이 밝힌 선군혁명원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총대철학과 함께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수 없습니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는 혁명운동, 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회정치조직들과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혁명군대가 노는 역할을 밝힌 원리이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정권, 자주적인민의 운명이 혁명군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혁명군대의 운명이자 곧 당의 운명이고 국가의 운명이며 인민의 운명이라는것이다.

혁명군대가 강하면 당도 국가도 굳건히 존재하면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인민도 자주적존엄을 빛내어나가게 되지만

군대가 약하면 당도 정권도 유지할수 없고 인민은 노예의 처지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이 이 원리가 담고있는 본질적내용이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는 결국 당창건위업을 이룩하고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세우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하는데서 혁명군대가 주도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혁명원리는 당과 사회주의국가, 인민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데서 혁명군대가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힌 원리이지 군대가 당이나 국가, 인민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원리가 아니다.

당과 사회주의국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데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혁명에서 군대가 결코 당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나 군대가 국가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정치를 좌지우지하며 인민을 대신할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원래 혁명투쟁에서 혁명적당과 국가, 인민과 혁명군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혁명군대는 어디까지나 당의 군대이며 그것은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 그리고 당은 군대가 지지하고 철저히 보위해주어야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다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당은 반드시 자기의 혁명무력, 군대를 가져야 하며 혁명군대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자기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정권과 인민대중의 운명도 혁명군대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수한 집단인 군대가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를 대신할수 없으며 력사의 주체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광범한 대중의 집단인 인민을 대표할수도 없다.

혁명군대는 당의 령도와 함께 강력한 국가적지원과 인민의 적극적인 원호에 의하여서만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는 총대철학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정권,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구체화된 원리이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는 혁명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총대철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총대를 잡은 집단인 혁명군대가 혁명운동, 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적집단들과의 관계에서 노는 역할을 구체화하여 밝혀준다.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군대가 노는 역할을 밝힌 원리로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가 구체화된것이다.

군대는 곧 당이라는것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혁명적당의 존재와 발전이 좌우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군대가 있어야 당도 있을수 있으며 군대를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야 당이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고수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혁명군대에 의거하여서만 우선 혁명적당창건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자면 수령에 의하여 당의 지도사상이 마련되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닦아져야 하며 광범한 대중적지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도사상, 령도핵심, 군중지반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는데서 나

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혁명군대에 의거할 때 훌륭히 해결되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원수들과 총대로 직접 맞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운동에서 수령의 신변안전과 사상을 지켜낼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은 무장을 틀어쥔 혁명군대이다. 그리고 사회의 그 어느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보다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이 강한 혁명군대에서 보다 혁명적이고 단련된 당의 골간력량이 자라나게 되며 혁명군대의 보호속에서만 당의 대중적지반도 비상히 확대되게 된다. 물론 당창건이 먼저 선포되고 그후에 혁명군대가 나올수 있다. 그러나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면서 반혁명세력의 폭압을 짓부실수 있는 자기의 혁명무력을 가지지 못하면 당의 지도력량과 핵심들을 보위할수 없고 대중적지반을 넓혀나가는 일을 순조롭게 해나갈수 없다.

혁명군대에 의하여서만 또한 당이 철저히 보위되고 유지된다.

혁명적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들이 혁명을 말살하는데서 혁명적당을 파괴하는데 큰 힘을 부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을 옹호보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고 혁명의 참모부이며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을 보위하고 강화해나가지 못하면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투쟁목적과 방향을 잃고 사분오렬되게 되며 따라서 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한다.

혁명의 원수들의 온갖 공격과 침해로부터 당을 사수하고 강화해나가는 기본력량, 핵심은 바로 혁명군대이다.

혁명군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 격과함으로써 당을 목숨으로 사수한다. 혁명군대는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혁명군대의 군사적보호가 없이는 당이 아무리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하여도 원수들의 반혁명적폭력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마련이다.

혁명군대는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당을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당안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선봉적, 혁명적역할에 의한 전투력을 높인다는것이다.

혁명군대가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핵심부대이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전위부대인것과 관련된다. 혁명군대는 단순한 무장집단인것이 아니라 혁명적단련의 용광로이며 사상정신적으로 준비된 당핵심과 당원대중을 키워내는 학교이다. 혁명적당은 군대가 키워내는 우수한 핵심과 당원대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게 된다.

혁명적당의 존재와 발전, 그 위력과 역할이 전적으로 혁명군대에 달려있기때문에 혁명투쟁에서는 군대이자 곧 당으로 되는것이다.

군대는 곧 국가이라는것은 군대가 있어야 국가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할수 있으며 국가활동도 잘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정권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국가정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정권을 틀어쥐지 못한 계급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목적과 리해관계에 맞게 사회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없다.

정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총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하고 정권을 장악할수 있으며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정권을 유지하고 반혁명세력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면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생활을 보장하여 줄수 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착취계급과 잔여세력이 준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군대를 떠난 사회주의국가의 존재와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적인 정권은 우선 혁명의 총대, 혁명군대에 의하여 탄생한다.

국가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과 반동적착취계급사이의 가장 치렬한 힘의 대결전이다. 력사의 온갖 반동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정치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을수 있는 결정적힘은 총대에 있다.

반동적착취계급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압살하기 위하여 언제나 폭력을 사용하며 온갖 반혁명적폭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그러므로 반혁명세력을 분쇄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을 전취하자면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적폭력으로 타승하여야 한다.

혁명적폭력은 수령의 령도를 받는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된 무장력이다.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자기의 강위력한 혁명무력을 조직하고 반혁명적폭력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반혁명세력의 필사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정권을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총대에 의거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정권은 또한 총대에 의하여 유지강화된다.

강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정권탈취를 위한 반혁명세력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부시고 피흘려 쟁취한 인민의 정권을 지켜낼수 없다.

정권을 빼앗긴 혁명의 원수들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악적으로 책동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책동도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승리한 혁명을 고수하려면 혁명의 총대, 혁명적무장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총대가 약하면 발악적으로 반항해나서는 계급적원수들에게 강력한 독재를 실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와 전복, 침략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정권을 지켜낼수 없다.

이와 같이 혁명적인 정권의 탄생과 유지강화의 전과정은 철두철미

총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군대는 곧 국가로 되는것이다.

군대는 곧 인민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대중이 자주적지위와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다.

혁명군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되며 그의 중요한 사명은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있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군대와 하나로 련결되어있다.

혁명군대가 있어야 우선 인민대중은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다.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특히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령토는 있어도 자주적인 정권이 없고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나라와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존엄과 지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 자주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근본담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데 있다.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 강권행위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못하면 인민들이 자주적인 존엄과 지위를 지킬수 없고 나아가서는 제국주의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고 만다는것은 오늘 인민을 지켜줄 강력한 군대가 없는것으로 하여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일부 나라들의 실패가 반증해주고있다.

혁명군대가 있어야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될수 있다.

혁명의 총대우에 인민의 안녕이 있고 행복도 있다.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으며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므로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인민의 안녕과 행복한 생활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한편 혁명군대는 단순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일뿐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의 창조자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군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마련되어나간다.

이와 같이 혁명투쟁에서는 군대를 떠나서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지위,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만큼 군대이자 곧 인민으로 되는 것이다.

3. 선군혁명원칙

선군혁명사상은 선군혁명원리에 맞게 혁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담은 선군혁명원칙을 밝혀준다.

선군혁명사상이 밝혀주고있는 선군혁명원칙은 두가지인데 그것은 군사선행의 원칙과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1) 군사선행의 원칙

군사선행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이다. 다시말하여 군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넣으며 군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의 본질적내용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사업의 발전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가장 큰 힘을 넣는것이다.

군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다른 모든 사업을 복종시킨다는것이며 군사에 최대의 힘을 넣는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가운데서 군사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군사문제해결에 나라의 정치, 경제, 사상문화적힘을 비롯한 모든 력량을 집중한다는것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의 본질적내용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사업의 우선적이고도 높은 발전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들의 통일적이고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것이다.

이것은 군사선행의 원칙이 군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정치와 사상, 경제와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

가기 위한 원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군사선행은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혁명의 원수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계속되는 한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우선 군사를 앞세워야 국가의 최고리익, 혁명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수호할수 있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는것은 국가의 최고리익, 혁명의 근본리익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인민대중은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자면 자체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자체의 군력을 강화하자면 군사를 앞세우고 군사에 힘을 집중하며 군사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군사문제의 우선적해결을 통하여 다른 모든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군사를 앞세우는것이 혁명의 근본립장인 자주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잃고 자주적립장에서 벗어나면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사대와 교조에 빠져 옳고 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며 제정신이 없이 남의 지휘봉에 따라 남의 식대로 행동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현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은 군사적힘이다. 그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는 자기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유지할수 없으며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관철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또

한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켜낼수 없고 제국주의의 경제적략탈을 단호히 막아낼수 없으며 민족문화도 지켜낼수 없다.

군사선행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힘의 대결속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적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군사적요인, 강한 군사력이다.

강력한 군사력은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인민의 혁명정권을 세우고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준다. 군사를 앞세우고 군사에 모든 힘을 집중할 때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지켜낼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행복한 생활도 마련해나갈수 있다.

군사가 국사중의 국사라는것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군사가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것은 우선 군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군사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수 없다. 군사를 중시하지 못하고 군사적힘을 키우는데 무관심하던 나라와 민족들은 려외없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군사적침략과 폭행의 처참한 희생물로 되었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군사가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것은 또한 군사를 중시하고 강한 군력을 갖추는것이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열쇠로 되기때문이다.

강한 군력은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할수 있는 평화로운 조건과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준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요인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군사적침략이며 이것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기본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이다. 강한 군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제적지위를 높여주고 그의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한다.

강한 군력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한다.

강력한 혁명군대는 나라의 정치적력량의 핵심부대이며 위력한 국방공업은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국방과학기술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반제군사전선이 조선혁명의 제일생명선이라는것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전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반제군사전선이 조선혁명의 제일생명선으로 되는것은 우선 조선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조선은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반제투쟁의 전선이다. 지난 기간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이전 소련이 붕괴된 후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가장 치렬한 투쟁으로 되고있다.

반제군사전선에서의 양보와 후퇴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 길이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다.

반제군사전선이 조선혁명의 제일생명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반제군사전선에서 승리하여야 다른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수 있기때문이다.

정치사상전선에서의 승리는 반제군사전선에서의 승리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을 강화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고 하여도 그렇고 일심단결을 실현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자고 하여도 반제군사전선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총대가 강해야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질수 있다.

경제과학전선에서 성과를 거두자고 하여도 반제군사전선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경제과학전선은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물질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중요전선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조선의 경제가 활성화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적인 통제수단까지 발동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같은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자고 하여도 반제군사전선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2) 선군후로의 원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군후로란 말그대로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군대를 로동계급보다 앞자리에 내세운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선군후로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이 아니라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우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내세운다는것은

혁명군대를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묶어세우고 그 대렬을 확대강화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기본력량으로,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내세운다는것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또한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보기로 내세우는 원칙이다.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보기로 내세운다는것은 혁명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여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강한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또한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이다.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은 혁명군대를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우고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에 의거하여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혁명과 건설전반사업을 다그쳐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선군정치를 펴면서 로동계급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것은 혁명의 주력군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혁명군대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이다.

혁명군대는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계급과 계층, 집단들가운데서 혁명

성과 조직성, 전투력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서 단순히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군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

인민군대는 조선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혁명적 무장력이며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인민군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

인민군대가 무장으로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담보되고있으며 조선의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조국보위의 제 1 선을 지키는 인민군대의 역할은 로동계급도 다른 어느 계급, 계층도 대신할수 없다.

이처럼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혁명군대가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견해와 관점을 출발적기초로 하고있다.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는 결정적요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의 핵심부대도 키울수 없고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울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참다운 혁명무력으로, 무적필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혁명군대가 지니고있는 가장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의 사상정신적원천이며 수령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군대가 혁

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혁명에 참가하는 군대나 사회주의나라 군대라고 하여 다 혁명군대의 품모와 자질을 갖추게 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이나 군대나 할것없이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의식화, 조직화 되어야만 혁명적인 계급,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될수 있고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의 핵심부대도 키울수 없고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울수도 없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는데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은 조선인민군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참다운 혁명무력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어왔으며 백두산혁명장군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의 원칙과 방도를 밝히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의 전형으로 꾸리시고 그 강화발전의 만년초석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력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수령님의 혁명업적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것은 오늘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선군정치를 펴나가는데서 튼튼한 토대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건군업적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품모와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의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이것은 혁명에 참가하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고 내세우는 데서 탁월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가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은 우선 시대의 발전과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다.

선행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았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선행리론은 19 세기 중엽 자본주의나라들의 현실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러나 시대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생활적기초와 로동의 특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로동계급의 생활적기초가 달라지고 로동은 더욱 기술화, 지능화되고있다. 그리고 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더욱 범람하게 되어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조직화를 억제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회계급관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주의건설과정은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다. 오늘 조선에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추진되어 로동계급과 다른 계급, 계층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점차 소멸되어가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선군혁명사상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아니라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은 또한 혁명의 주력군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주력군문제를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서 해명하였다.

혁명의 주력군문제를 계급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밝힌 선행리론과는 달리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주력군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해명하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역할문제를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서 해명하였다.

선행리론에서는 군대를 혁명의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보지 못하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핵심적지위를 차지하며 주도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이로부터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기본전선인 반제군사전선을 말아 혁명을 앞장에서 떠밀고나가는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이 조선혁명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인민군대가 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맡고 있기때문이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혁명대오이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수호한다.

이것은 인민군대가 로동계급도 다른 어느 사회적집단도 대신할수 없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이 조선혁명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인민군대가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있어서 제일 강한 혁명집단이기때문이다.

인민군대는 혁명에 참가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들가운데서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이 제일 강하다.

인민군대는 무장대오로서의 특성, 인민군대특유의 기질로 하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집단주의정신이 높고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이 강하다. 인민군대가 지닌 혁명적군인정신과 군인품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은 조선혁명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선군후로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는것은 선군후로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볼 때 선군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군후로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혁명군대는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집단이기때문에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내세우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사상적통일체로 굳게 결속시킨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대오의 조직적단결과 도덕의리적단결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광범한 대중을 조직화하는데서 본보기로 내세워 혁명대오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울수 있는 공고한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수령중심의 동지애에 기초하여 도덕의리적으로 가장 공고하게 결합된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혁명의 주체를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핵무기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 도덕의리적통일체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때문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여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킨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은 혁명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인민군대가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인민들에게 심어주는 참다운 선도자,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하나로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자기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사관철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도록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혁명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는 과정에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도덕의리심을 키워나가게 되며 일심단결의 정신력과 민족자존의 정신력,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같은 강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나가게 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간다.

창조가 없는 혁명이란 없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여나가는 여기에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청산하고 대혁신, 대비약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이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혁명군대에서 창조되는 투쟁기풍과 일본새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혁명군대의 창조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창조와 투쟁으로 고무추동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혁명군대의 창조적인 투쟁과 사업성과는 사회성원들에게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관점과 생활방식을 극복하는데서 커다란 영향을 주어 광범한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자면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안일과 해이를 극복하고 언제나 긴장하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사업이며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투쟁이다.

혁명앞에 나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불패의 힘을 지닌 위력한 사회정치적집단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될수 있는 사회적집단을 바로 선정하고 내세워야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이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우는 사회적집단은 혁명군대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혁명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높은 혁명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움으로써 혁명군대가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도록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한다.

4. 선군정치리론

선군혁명사상은 선군혁명원리, 선군혁명원칙과 함께 선군정치리론을 자기의 기본내용의 하나로 하고있다.

선군정치리론은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혁명령도방식, 정치방식에 관한 리론으로서 선군정치의 본질과 지위, 선군정치의 근본바탕과 선군정치가 의거하고있는 3대혁명력량, 선군령도체계와 령도예술 등 사회주의정치의 성과적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다.

1) 선군정치의 본질과 역사적지위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운동의 특성과 조선혁명실천의 고귀한 경험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선군정치의 본질과 지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정치방식에 관한 리론확립의 기초적인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김정일**동지

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우선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이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는것은 당과 국가정권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군사를 나라의 제일가는 중대사업으로 내세우고 그 강화에 첫째가는 힘을 넣는다는것이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정치실현에서 군사를 기본으로 보고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넣는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또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간다는것은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킨다는것이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선군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순결체로 만들고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해나가는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또한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정치의 근본목적을 혁명군대에 철저히 의거하고 그의 주도적역할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실현해나가는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의 기초, 출발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을 벌리는 데 있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먼저 군대부터 창건하시고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야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도 언제나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인민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만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선군정치의 목적은 우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확립된 정치방식이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할 때 그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략책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히 분쇄해버린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첫째가는 목적을 두고있다.

선군정치의 목적은 또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룡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

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전반을 정예화, 강군화된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꾸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한다.

선군정치의 목적은 바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반만년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있다.

선군정치의 혁명적성격은 우선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자주의 정치라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밑에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는 혁명적립장이 투철한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강한 군사력에 기초하여 그 어떤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기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해나가는 정치이다. 뿐만아니라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고 그들의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킴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정치이다.

선군정치의 혁명적성격은 또한 나라와 민족,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 룡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라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총대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민족공동의 룡성번영을 이룩해나가게 한다. 특히 강력한 무장력에 의거하고있는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준다.

오늘 조선민족이 처하고있는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과 조건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참다운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는 선군정치이다.

이와 같이 가장 철저한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라는데 바로 선군정치의 혁명적성격이 있다.

선군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그것이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고있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은 총대에 사상을 결합시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선군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하는 정치라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그 전통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오시였으며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신 신념과 의지의 최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을 계승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선군정치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주성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배짱이 구현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하는 선군정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선군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탁월한 수령들이 지닌 인민에 대한 사랑을 핵으로 하여 펼쳐나가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선군정치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신 전기간 적들의 초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최전연초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쉬임없이 찾아 군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핵으로 하는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됨으로써 인류정치사와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리념과 원칙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정치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이라는데는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존재와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기때문이다.

총대를 혁명의 제일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리념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하고 혁명의 근본원칙인 로동계급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덕정치를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정치방식들이 더 잘 실현되어나갈수 있게 하

는 정치방식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정치에는 인덕정치, 사회주의적민주주의 등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정치방식들이 있다.

선군정치가 첫자리에 놓는 총대는 인덕정치실현의 전제이고 담보이며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근본조건을 확고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방식이기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제국주의침략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기때문이다.

2)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선군정치의 존재와 성과적실현을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요인을 말한다.

선군정치는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사회주의정치방식들과는 달리 격동하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추동력으로 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이라느것은 우선 그것이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확립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느것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가 따라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에서 가장 큰 난관과 시련이 겹쌓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전당과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때 자신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자신의 정치는 선군정치라고 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이라는것은 또한 그것이 선군정치의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정치가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력량인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이고 그의 혁명적기질과 전투적위력을 반영하고 있는 정신인것으로 하여 선군정치의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게 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혁명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실현을 담보한다. 뿐만아니라 혁명적군인정신은 혁명군대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해나가게 함으로써 선군정치가 의거하고있는 일심단결의 위력에 성과적실현을 담보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입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선군시대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휘된 혁명정신을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85(1996)년 6 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도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이라는 말은 조선로동당이 처음으로 내놓은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혁명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령을 목숨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정신을 말하며 결사관철의 정신은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사상과 로선, 명령과 지시를 한몸이 그대로 불사신이 되어 관철해나가는 혁명정신을 말한다. 영웅적희생정신은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정신을 말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기본내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신변안전과 사상과 권위, 고귀한 업적을 한목숨바쳐 옹호보위하려는 가장 숭고한 각오이며 결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혁명적군인정신의 핵을 이루고있다는것은 그것이 혁명적군인정신의 다른 모든 사상정신적내용에 관통되고 그 발현과정을 규제하는 혁명정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이라는데 그것이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이라는것은 그것이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오늘의 선군시대를 펼쳐놓은 위대한 혁명정신이라는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인 선군혁명사상이

낳은 위대한 혁명정신이기 때문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벌여오는 과정에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인 혁명군대의 본성과 특징을 반영하고있는 혁명정신이기 때문이다.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군대이며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군대의 본성과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혁명집단으로서의 혁명군대의 특징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혁명정신이기 때문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로동계급적원칙을 두고는 그 어떤 흥정도 하지 않으며 죽어도 이 원칙만은 베고 죽겠다는 가장 견결한 로동계급적원칙성이 체현되어있으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썩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증오심, 무자비한 섬멸의 정신이 끓어번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단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필승의 기질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은 우선 그것이 선군시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정신적무기라는데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가의 정치사상적품모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이

도달해야 할 가장 승고한 높이의 도덕의리적, 문화정서적품모를 구현하고있다.

선군시대에는 로동계급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야 자기의 계급적본분과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 사회주의근로자로서의 영예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다.

그런것만큼 혁명적군인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도록 고무추동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은 또한 그것이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라는데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갈 무한한 애국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쳐나가게 한다.

3)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

주체의 혁명적당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으로 되고있다.

3

선군사상은 혁명적당이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도 당의 혁명령도이며 당의 정치입니다.》

혁명적당이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이라는것은 혁명적당이 선군정치

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이다.

혁명적당은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한다.

혁명적당이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는것은 혁명적당이 선군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최고수위에 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수령의 선군혁명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 가장 우수한 선군혁명투사들로 무어진 정치조직, 수령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있는 정치조직이기때문이다.

혁명적당은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역할을 수행한다.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의 내용은 우선 혁명적당이 수령의 선군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십시오으로써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다.

선군사상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은 수령의 선군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총대, 혁명군대강화를 앞세울데 대한 정치로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정치조직들이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선군의 원칙에서 자기의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도록 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수령의 선군령도, 선군정치의 철저한 실현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한다.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의 내용은 또한 혁명적당이 혁명군대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수령의 선군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지휘하는데 있다.

선군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조직과 당의 령도를 받는 여러 근로단체조직들에 결속시킴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혁명의 주체의 사상의지적, 조직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뿐만아니라 혁명적당

의 조직동원자적역할에 의하여 수령의 선군혁명로선이 광범한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섬으로써 선군혁명은 힘있게 추동되어나가게 된다.

3

혁명군대는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이라는데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에서 혁명무력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무장대오인 인민군대만이 선군정치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었습니다.》

혁명군대가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선군정치실현에서 선봉대, 돌격대로 되는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이다.

혁명군대가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은 우선 혁명군대가 당과 수령을 굳건히 수호하는 위력한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적당과 수령이 펼치는 정치이며 당과 수령을 떠나서 선군혁명의 그 어떤 혁명집단, 정치적력량에 대해서도 나아가서 선군정치와 실현 그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혁명군대가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은 또한 혁명군대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관철해나가는데서 본보기, 기수이라는것이다.

혁명군대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는데서 본보기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기수이다.

3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서 선군정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된다는데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에서 일심단결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서 선군정치의 강력한 추진력이라는것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위력한 힘으로서 선군정치를 굳건히 떠받들고 힘있게 추동하는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이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우선 선군정치의 튼튼한 정치적지반으로 되고있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조직사상적결합과 도덕의리적단합으로 선군정치의 존재와 발전을 확고히 담보한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또한 선군정치를 떠미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온 사회의 사상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선군정치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게 하는 위력한 힘이다.

4) 선군령도체계와 령도예술

선군정치리론은 선군령도체계와 령도예술을 통하여 선군혁명원칙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반드시 의거해야 할 제도와 질서, 묘술과 수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조선에서 선군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체계이다.

선군령도체계가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체계라는것은 결국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체계라는것이다.

오늘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 조국땅우에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가 그대로 흐르도록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선군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령도체계인것이다.

당과 수령의 선군령도는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인 동시에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관리하는 정치적령도이다.

그런것만큼 선군령도체계는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와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는 곧 최고사령관의 령도입니다.》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최고사령관이 혁명

의 주력군인 혁명군대를 틀어쥐고 그를 지휘통솔하는 유일적령도체계이다.

최고사령관은 혁명무력의 통솔자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끄는 최고령도자로서 유일적령도체계를 통하여 혁명무력을 통솔한다.

조선의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무력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인 령도체계이다.

조선의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인 령도체계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계실 때부터 수립되어 있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그것이 빛나게 옹호고수되고 심화발전되고있다.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집중시키고 그이의 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제도와 질서이며 혁명무력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 오랜 기간의 국가령도경험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기구체계들이 가지고있는 우단 점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가령도체계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여러차례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불면불휴의 령도로 가장 우월한 국가령도체계를 세워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세계정치계의 초점은 조선에서의 국가수반추대문제에 예리하게 모아지고있었다.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한결같이 공인하면서 수령님께서 생전에 지니시였던 국가령도자의 최고공직을 맡아주실것을 절절히 기대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지니시였던 국가의 최고공직의 보존여부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국가령도체계확립문제를 단순한 국가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조선혁명가들의 충실성과 고상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문제로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창조하시고 오래동안 국가정치활동을 이끌어오시면서 제도화해놓으신 국가령도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령도체계,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충실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령도체계를 세우면서도 수령님께서 맡으시였던 국가주석의 최고공직을 력사적인것으로 남긴채 국가활동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자면 새로운 국가기관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시였다.

그것이 조선의 국가기관체계에서 주석제를 영원히 없애며 주석이라는 직함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밖에는 그 누구도 다시는 지닐수 없다는것을 법화해놓아야 한다는것, 국가의 최고리익과 직결되는 국방문제를 직접 다루어나가는 국방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의 지위와 권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정치활동전반을 조직지휘할수 있는 국가기관체계를 세워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의도가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고 그의 지위와 권능을 규제한 헌법조항을 작성공포하는 사업에서 철저히 관철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헌법수정사업의 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

시고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수행해나가자면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국가기구조직에서 국가방위와 국가관리권능을 가르고 국방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는 국가기관안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인 동시에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된다는것과 일체 무력,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 지휘통솔권을 행사한다는것을 규제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조선에서는 주체 87(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국방위원회를 나라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최고령도자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우월한 독창적인 국가기관체계, 나라의 국방사업전반을 지휘통솔하는 국방위원회를 핵심으로 하여 국가기관들을 구성한 새로운 국가기관체계가 창조되고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이끄는 국가령도체계가 확립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 국가령도체계, 군대령도체계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군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한다는것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전진하는 선군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와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를 옹호고수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보충완비해나가며 혁명실천에 확고히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군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우선 그것이 선군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선군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선군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것이 선군정치를 항구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선군령도체계는 선군정치를 항구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견지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마련한다. 선군령도체계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로동계급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사업이 담보되게 된다.

선군령도체계,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가 가장 공고한 토대우에 확립된 정치체계인것으로 하여 선군정치의 항구성이 담보된다.

선군령도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수령, 선군령장에 의하여 창조되는 대중령도의 묘술과 수법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창

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옹호고수하시고 더욱 빛내이시는 대중령도의 묘술과 수법이다.

선군령도예술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창조하신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수법과 방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그 과정에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총대중 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선군혁명령도를 하시는 나날에 군대가 먼저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 그리고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된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는 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펼쳐가시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선군령도예술의 모범을 그대로 계승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완성해나가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선군령도예술의 본질적내용은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본보기를 먼저 창조하고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방법,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일본새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완강한 공격전으로 단숨에 해제끼는 방법이다.

선군령도예술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는 나날에 창조하시는 대중에 대한 조직과 동원의 수법과 방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

령도예술 그대로 군대가 먼저 본보기를 창조하고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방법, 군대의 투쟁기풍으로 모든것을 단숨에 해제끼는 공격전의 방법 등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선군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높은 창조성과 령활성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다.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령활하게 대처하며 모든 사업을 환경과 조건,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 방법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선군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선군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혁명군대지휘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대로 일군들이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어나가는것이다.

혁명군대지휘관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선군혁명의 위대한 수령, 탁월한 선군령장의 대중령도예술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업방법이며 사업작풍이다.

혁명군대지휘관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은 혁명성, 창조성, 전투성으로 일관된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사업방법이며 충실성, 헌신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사업기풍이고 품모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5)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선군사상의 독창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로동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를 새롭게 내놓았다는데 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다.

선군정치는 조선로동당이 처음 내놓은 새로운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해당 정치를 받들고 주도해나가는 핵심이며 기둥인 혁명의 주력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정립된 정치방식이다.

혁명의 주력군문제는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각이한 사회적집단들 가운데서 어느 계급, 어느 계층, 어느 사회적집단을 핵심력량, 본보기로 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래 혁명의 주력군문제는 그 중요성으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첫시기부터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리론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갔으며 이것은 어길수 없는 혁명의 공식처럼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선행리론가들이 내놓은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리론과 공식은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회적변화가 일어난 오늘의 현실에서는 맞지 않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주력군문제는 반드시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이 제일 강한 사회적집단을 내세움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시대에서는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결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은 우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데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제투쟁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이것은 현시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은 또한 반제반미대결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조선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데 있다.

선군정치는 가장 강대한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속에서 개척되고 전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세계제국주의반동연합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야 하는 조선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과학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은 또한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된데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자위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던것은 선군정치의 결과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전군, 전민이 결사의 각오로 영웅적투쟁을 벌렸기때문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선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군사진지가 철옹성같이 다져진데서 과시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하였으며 적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왔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당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된데서 과시되고있다.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대단결의 미풍이 차넘치고있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들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은 사상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로 되고있다. 선군시대에 인민군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선도적역할을 하고 인민들은 군대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숭고한 원군기풍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동지적단결은 더욱더 굳게 다져졌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서 과시되고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섰으며 로력적위훈을 떨치고 빛나는 모범을 보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영웅적투쟁을 벌려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현대적공장들을 일떠세웠으며 인민경제의 어렵고 중요한 부문들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일으켰다.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가장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되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었으며 조선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확대발전되고있는데서 과시되고있다.

민족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와 그에 기초한 조국통일정책과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심화발전되고있다.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타격을 주고 반제자주력량을 고무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